



## 윤회에 나타나는 정체성 바꾸기의 의미 삼국유사와 영웅소설을 중심으로

The Meaning for Changing the Identity in Wheel of Life - Centrally Samgukyusa() and Fiction for Hero -

---

저자 (Authors)	심혜경 Shim, Hye Kyung
출처 (Source)	<a href="#">동악어문학 60</a> , 2013.2, 5-38(34 pages) <a href="#">Journal of Dong-ak Language and Literature 60</a> , 2013.2, 5-38(34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동악어문학회</a> Dong-ak Society of Language and Literature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124138">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124138</a>
APA Style	심혜경 (2013). 윤회에 나타나는 정체성 바꾸기의 의미. 동악어문학, 60, 5-3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 사문화관 183.106.106.*** 2021/11/23 11:51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윤회에 나타나는 정체성 바꾸기의 의미

『삼국유사』와 영웅소설을 중심으로

심혜경\*

## || 차례 ||

- I. 들어가며
- II.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정체성 바꾸기
  1. 주체의 욕망과 시공간 바꾸기
  2. 신격의 개입과 정체성 바꾸기
- III. 영웅소설에 나타나는 정체성 바꾸기
  1. 금기의 욕망과 현생의 의미
  2. 신격의 개입과 성장점의 의미
- IV. 나가며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삼국유사』와 영웅소설의 시간과 공간에 따른 인물의 정체성 변화에 대해 논의한 글이다. 『삼국유사』와 고전소설에 흔히 등장하는 ‘윤회(輪回)’는 전생-현생-내생이라는 설정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이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것은 서사에서 의도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바꾸기’ 함으로써 주인공의 정체성 변화, 스토리의 원만한 진행, 주체의 강조 등의 서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삼국유사』 설화에서 주체와 타자의 욕망은 시공간 바꾸기를 통해서 충족되는

\* 동국대학교 강사

데 욕망이 결핍된 인물보다 욕망이 충족된 인물이 더 비중 있게 그려짐으로써 후자의 스토리를 강화하고 있다. 김유신 설화의 경우에는 전생과 내생에 신격의 인물이 배치되었으며 이는 고전 소설의 관습적인 유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간과 공간을 바꾸지 않고, 현생 안에서 정체성 바꾸기를 시도한 신격 인물들의 등장은 종교적 성향이 강하다. 이들은 즉각적인 깨우침을 통해 주인공의 성장을 유도하거나 주인공의 정체성을 바꾸기도 한다. 『삼국유사』와 다르게 영웅소설에 나타나는 인물의 욕망들은 천상이라는 공간에서 금기의 욕망으로 치부되고 인간의 삶 또한 형벌로 정의된다. 이때 현재의 삶은 형벌과 동시에 보상의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으며 삼생(三生) 가운데 현생이 가장 강조되어 그려지는 것이 소설적 특징이라 할 것이다. 특히 현생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을 보조하는 인물들로 신격의 개입이 나타나는 것이 눈에 띄며 이는 주인공의 성장점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윤희를 통한 시공간 바꾸기는 인물의 정체성을 바꾸고 동시에 독자에게도 다양한 시각적 전환을 유도하여 현재의 삶을 성찰하는 눈을 갖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문주제어 : 윤희, 시간과 공간 바꾸기, 정체성 바꾸기, 서사전략, 영웅, 고전소설, 금기의 욕망, 성찰, 죄, 형벌

## I. 들어가며

최근 들어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영혼이 바뀐다거나 전생의 인연을 통해 현생에 또 다른 인연을 맺게 된다는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sup>1)</sup> 이러한 이야기들은 소재적인 측면에서 남다른 호기심을 유발할

1) 2012년 상반기에 반향을 일으킨 드라마들 가운데 『옥탑방 왕세자』는 타임슬립과 환생이라는 모티프를 활용하고 있다. 전생에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남자가 현생에는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악인들 역시 똑같이 선악의 대립구도로 환생하여 주인공들과 대치하고 있다. 환생과 윤희의 기본 줄거리에 타임슬립이라는 현대소설에 등장한 시공간 변경장치가 가미되어 전생과 현생의 악연의 고리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개인의 역사를 인과 관계를 통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대중들이 영혼 바꾸기, 환생, 윤회라는 다소 유치하다고 치부하는 서사적 기법에 빠져드는 것을 일시적인 호기심이나 대리 만족적 쾌감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타인의 몸과 영혼이 바뀌고, 바뀐 몸으로 좌충우돌하며 살아가는 삶 내부에서 현실과 괴리되어 나타나는 인간의 모순점을 발견해가는 과정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오락적 즐거움으로 정의내리기에는 가볍지 않은 면들이 많다.

현재의 대중들이 가진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사유의 깊이에는 아주 오래 전 인류의 보편적인 생각, 믿음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전승된 것들이 많다. 인간이 가진 능력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 중의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낸 상상력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상상력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가능성의 지표이다. 하늘을 날고 싶다는 욕망을 비행기라는 현실로 만들어 낸 것, 지금이 자리에서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다는 욕망을 전화와 컴퓨터라는 현재로 재현한 것, 이 모든 것들의 잠재적 태(態)는 모두가 상상력에서 발현된 것이다. 앞서의 예들이 물질문명에 대한 상상력의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정신문화에 대한 상상력의 끝은 어디인가. 사실 인간의 상상력을 폭이나 넓이로 수치화할 수는 없는 법이고, 다만 그 상상력이 재현된 공간, 혹은 시간은 어디인가 하는 물음을 다시 한 번 던져볼 수 있을 듯하다.<sup>2)</sup>

---

끊는 역할을 하고 있다. 드라마 『울랄라 부부』는 윤회의 코드에 ‘영혼 바꾸기’라는 설정을 보태어 남녀가 역할을 바꾸어 인생을 체험하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인생 ‘바꾸기’ 설정은 2011년 초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가 대중적 인기를 끈 이후 아류작들을 재생산해내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매력적인 서사 기법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 2)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상상력은 모방(imitation)의 하위 개념으로 한갓 환상만을 만드는 능력으로 파악되었지만 르네상스 시대에는 피치노(M. Ficini, 1433~1499), 파라켈수스(Paracelsus, 1493~1541), 브루노(G. Brunu, 1548~1600) 등에 의해 상징

인류가 가진 여러 궁금증 가운데 자신과 삶을 기초로 하는 물음은 꺾이나 기본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관계들을 해석하고 판단함으로써 그 자신과 삶이 분명하고도 확고해지는 것이기에 해석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이때 인간이 유한한 존재로서 자신과 삶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종교이다. 종교는 미완의 존재인 인간에게 불완전함을 자각시키고 수행과 각성을 단계적으로 훈련시키는 고도화 된 정신문화이다. 이 정신문화 안에는 인류가 생각하는 인간의 한계, 능력, 가치, 욕망 등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 그 가운데는 삶과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물음들 또한 즐비하다. 특히 삶과 죽음의 문제는 아주 오랫동안 인류의 탐구 대상이 되어 왔고 그만큼 다양한 이론들이 축적되어 있다. 숭한 철학자들이 여러 학설로 증명하고자 하였으며 종교 역시 삶과 죽음의 실체를 밝히고자 각종의 근거를 들어왔다.<sup>3)</sup>

현재 우리 문화 안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회자되는 ‘환생’과 ‘윤회’의 이야기는 이러한 인류의 상상력과 종교적 논리로 설명되는 것들이다. 현재의 삶보다 앞서 있지만 주체가 스스로의 인지능력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미지의 삶과 세계를 우리는 전생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sup>4)</sup> 또 현

---

적 이미지를 창출하는 정신 능력으로 파악되었다. 상상력이 창조적 능력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것이다. 고대 신화를 재해석하는 작업에 상상력이 기여하였고 르네상스 인문학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근대 인문학에서 상상력 이론이 가지는 비중을 볼 때, 상상력의 질량은 결코 적지 않다. (강동수·김재철, 『초기 르네상스 철학의 상상력 이론』, 『철학연구』 87집, 대한철학회, 2003, 2-8면 참조)

- 3) 영혼과 내세의 존재 여부를 설명하는 것처럼 기독교와 불교 등 각 종교에서는 교리를 바탕으로 인간의 삶, 죽음의 문제를 일차적으로 다루고 있다. 종교마다 세부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육체를 떠난 영혼에 대한 관심,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 현재라는 시간공간을 제외한 타계의 설정 등 무한한 상상력과 철저하게 이론화 된 틀 안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규명해내려고 하고 있다.
- 4) 권현익은 전생의 서사가 이야기 전체 서사에서 현생, 내생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이야기의 상상력 바탕을 보여주고,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는 소재라 하였다. 또한 전생은 주로 한 개인의 전기적 삶을 대상으로 그 사람이 기억하

재 이전의 삶이 있기에 현재 이후의 삶까지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무한한 서사가 우리 문화와 그 문화를 형성해왔던 일련의 작품들 속에 남아있다. 『삼국유사』를 필두로 중세의 불전문학, 고전소설 등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상상력은 현재까지도 드라마와 영화, 현대소설 안에서 무리 없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보통 환생과 윤희는 불교적 시간관으로 설명된다. 불교의 초기 경전인 『아함경』에서 붓다(Buddha)는 흔히 전생담을 들어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며, 인연의 고리가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불교의 시간은 고대의 시간론에서 비유되는 자연의 순환과 유사하다. 자연은 씨앗에서 싹이 돋고 열매를 맺어 결국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것은 다시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는 순환을 보여준다.<sup>5)</sup> 이때 시간의 순환성은 하나의 시간이 끊임 없이 연장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공간과 실존의 정체성은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체성의 변화는 시·공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논문은 그러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환생과 윤희라는 서사적 코드가 주체의 실존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시간과 공간의 구조, 배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추적해 볼 것이다. 이에 논자는 『삼국유사』의 ‘김대성 설화’, ‘김유신 설화’를 필두로 윤희를 구조화하고 있는 일련의 영웅소설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

고 남들이 기억해주는 과거에 선행하는 선행적인 대과거, 한 개인의 선사시대를 지칭하므로 허무맹랑한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학의 과학적 토대를 형성하는 사적(史的) 상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권현익, 『전생에 맺은 사회관계-신화분석과 비교문화』, 『한국문화인류학』 32-1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99, 151면 참조.)

5) 오현숙, 『틀뢰즈와 불교의 시간론』, 『동서비교문화저널』 16호, 2007 봄 · 여름, 113면.

## II.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정체성 바꾸기

### 1. 주체의 욕망과 시공간 바꾸기

『삼국유사』의 설화에는 다양한 윤회 양상이 존재한다. 경일남은 『삼국유사』 소재의 인물출생담을 정리하면서 윤회전생형(輪回轉生型)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전생형은 크게 서원에 의한 전생과 공덕에 의한 전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공덕에 의한 전생이 불교적 취의가 강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하였다.<sup>6)</sup> 불교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건 아니건 일단은 윤회라는 시공간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서사의 문면에 등장한다는 점은 이미 고대 이전부터 우리 민족의 상상력 안에 삶과 죽음에 대한 시간관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효선』편에 등장하는 ‘大成孝二世父母’의 김대성은 환생하여 현세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짓고 전생의 부모를 위하여 석불사를 지은 인물이다. 서사 안에서 김대성의 전생과 현생이 비교적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 인물의 전생과 현생을 살펴보면 두 인물의 기본 성품이 제법 다른 것으로 보인다. 전생의 김대성은 경조라는 여인의 아들로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다가 보시의 공덕이 매우 지중함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인물이다. 그는 스님이 읊는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삶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낸다. 전생과 현생, 내생의 존재, 그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순간, 그는 한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찾아내고 행동으로 옮긴다.

대성이 그 말을 듣고 뛰어 들어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제가 문간에서 스님이 축원하는 말을 들으니 하나를 보시하면 만 배를 얻는다고 합니다. 생각건대 제가 전생(前生)에 닦은 선업이 없어서 지금 이처럼 곤궁한

6) 경일남, 『<삼국유사>의 신이출생고』, 『어문연구』 vol.15, 어문연구학회, 1986. 115-130면.

것입니다. 지금 또 보시하지 않으면 내세에는 더욱 가난할 것입니다. 제가 품삯으로 받은 밭을 범회에 시주하여 훗날의 과보를 도모함이 어떠할까요?” 그 어머니가 좋다고 하여 밭을 점개(漸開)에게 보시하였다. 얼마 안 되어 대성이 죽었다. 그날 밤에 국상(國相) 김문량의 집에 하늘로부터 부르짖음이 있어 이르기를, “모량리(牟梁里)에 살던 대성이라는 아이가 이제 너의 집에 환생할 것”이라 하였다. 집 안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모량리를 찾아가 조사해 보고 대성이라는 사람이 과연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하늘의 부르짖음과 동시에 김문량의 아내가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왼손을 꼭 쥐고 펴지 않다가 이레 만에 쥐고 있던 손을 폈다. 그 손 안을 보니, 대성이라는 이름 두 자가 새겨진 금간자(金簡子)가 있어서, 이름을 대성이라 하였다. 그리고 생전의 어머니를 모셔다가 함께 봉양하였다. 그는 장성하여 사냥을 좋아하였다. 하루는 토함산에 올라가서 곰 한 마리를 잡고 산 아래 마을에서 유숙하였다. 꿈에 곰이 귀신으로 변하여 시비를 따졌다. “네가 어찌서 나를 죽였느냐 내가 환생해서 너를 잡아먹겠다.” 대성이 두려워하여 용서해줄기를 청하였다. 귀신이 “네가 능히 나를 위하여 절을 세워주겠느냐?” 물었다. 대성이 그러겠다고 맹세하였다. 꿈에서 깨고 보니 땀이 흘러 자리를 적시었다. 이후로 사냥을 금하고 꿈을 위하여 그 잡은 자리에 장수사(長壽寺)를 세웠다. 이로 인해 마음에 느끼는 바가 있어, 자비스러운 원이 더해졌다.<sup>7)</sup>

반면 환생한 김대성은 전생의 김대성처럼 기민하지 않다. 비록 태어날 때 이미 환생의 징후를 보였지만 그는 삶의 순환적인 역사에 대해서 그다

7) 大城聞之, 跳跟而入, 謂其母曰, 予聽門僧誦偈, 云施一得萬倍. 念我定無宿善, 今茲困匱矣. 今又不施, 來世益艱, 施我傭田於法會, 以圖後報何如. 母曰, 善. 乃施田於開. 未幾, 城物故, 是日夜, 國宰金文亮家, 有天唱云, 牟梁里大城兒, 今託汝家. 家人震驚, 遂檢牟梁里, 城果亡. 其日與唱同時, 有娠生兒, 左手握不發, 七日乃開, 有金簡子彫大城二字, 又以名之, 迎其母於第中兼養之. 既壯, 好遊獵. 一日登吐含山捕一熊, 宿山下村, 夢熊變爲鬼訟曰, 汝何殺我, 我還啖汝. 城怖懼請容赦. 鬼曰, 能爲我創佛寺乎. 城誓之曰諾, 既覺, 汗流被蓐. 自後禁原野, 爲熊創長壽寺於其捕地. 因而情有所感, 悲願增篤. (‘大成孝二世父母’, 『孝善』, 『三國遺事』)

지 넓은 안목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그가 살생을 즐기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이다. 사냥을 즐기는 것은 생명을 향한 경외심, 삶의 순환적인 이치에 어두운 것으로 해석된다. 그가 ‘마음에 느끼는 바’가 있어 세상을 향해 자비스러운 원(願)을 세우는 것은 이미 살생을 저지르고, 꿈속에서 그 원한의 실체를 확인하고 난 뒤의 일이다. 자신의 환생 사실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sup>8)</sup> 그는 살생을 즐기는 사람으로 자랐다. 그것은 환생한 김대성이 전생의 김대성과는 엄연히 다른 인물임을 말하는 것이다. 전생의 김대성이 재빠르게 삶의 속성과 원리를 파악한 인물이라면, 환생한 김대성은 악업에 대한 직접적인 공포를 체험하고서야 그 원리를 깨닫는 인물인 것이다.

두 인물의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한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여러 지표들 가운데 이름은 가장 문면에 드러나는 것이다. 김대성은 환생의 전과 후 동일한 이름을 사용한다. 대부분의 윤회 서사에서 주인공의 이름이 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하여 특기할만한 점이다. 서사를 분석해보면 환생 전과 환생 후를 동일한 인물로 인정해서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름이라는 정체성은 그대로인지 모르지만 실제 사람의 정체성은 바뀌었기에 이는 엄연히 다른 사람으로 파악해야 한다.

환생 전의 김대성은 경조의 아들이고 남의 집 머슴이다. 지독한 가난으로 어린 시절부터 고생만 한 인물이다. 그러나 환생 후의 김대성은 재상의 아들이고 고생 없이 자라 여유롭게 사냥을 즐기며 사는 인물이다. 이 두 인물은 전혀 연결고리가 없지만 윤회라는 장치를 통해서 동일한 인물로

8) 대성이라는 이름이 쓰인 금관자를 손에 쥐고 있었다는 이적만으로도 그의 출생은 남다르고 결과적으로 불국사와 석불사를 짓는 국가적 대업을 이루는 인물로 부상하지만, 꿈속에서 꿈을 만나 환생과 악업의 이치에 대해 듣기 전까지 아직 자아의 실체와 세상의 원리를 각성하지 못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환생 전의 인물보다 성장의 속도가 느리다고 할 수 있다.

읽히도록 의도되었다. 김대성이 죽어서 다시 김대성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기에 즉 A가 A'나 B가 되지 않고 여전히 A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에 누구나 A=A라고 인식하게끔 의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후자의 A는 전적으로 전자의 A에서 배태된 인물이라는 점이다. 후자의 A는 전자의 A가 꿈꾸던 삶을 사는 인물이다. 전자의 A는 무엇보다 자신의 처지(가난)를 벗어나고 싶어 한 인물로서 보시를 통해 그러한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였다. '김대성 설화'의 전체 서사는 A의 욕망을 현실적으로 실현해주고자 한다. 하지만 전자의 A가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는 것은 그가 기존에 자리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의 신분과 한계를 바꿀 조건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욕망을 충족시킬 시공간은 윤희라는 순환논리 안에서 새로운 시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후자의 시공간에서 A는 새로운 조건을 형성한다. 부모, 환경, 처지가 새로이 배치되고 A의 욕망이 순조롭게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A는 자신의 현재 처지인 신분, 태생적 한계 등의 조건을 윤희를 통해 바꾸기를 욕망하고 그런 욕망은 서사의 윤희구조 안에서 실현된다. 서사구조는 윤희라는 특정 순환논리를 삽입함으로써 인물을 중심으로 시공간을 바꾼다. 후자의 A를 재현하기 위해서 전자의 A가 가진 조건 즉 시간과 공간을 재편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A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은 그가 존재하는 기본 조건인 시간과 공간을 바꾸기 함으로써 가능하다.<sup>9)</sup> 결과적으로 후자의 A는 전자의 A와 동일한 인물이 아닌 전

9) 시간과 공간 바꾸기에서 두 개념을 일관되게 융합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시간은 연속적이고 공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인데 윤희구조는 시공간을 통합하여 파악할 개념이다. 대부분의 서사에서 윤희구조는 '전생(천상계)-현생(인간계)-내생(천상계)'으로 나타난다. 김대성 설화의 경우에는 인간계에서 인간계로 윤희하는 경우를 보여주는데 시간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므로 공간만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윤희구조를 차용하는 대부분의 서사들은 시간을 공간과 따로 분리하여 배치하지 않고 있다. 세월이 흘러 바뀐 시공간에서 인물 역시 전생과는 다른 바뀐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다. 김대성의 설화 역시 같은 맥락에

혀 다른 B가 된다. 그럼에도 김대성이 전생과 후생에서 같은 이름을 가지는 것은 그가 ‘환생’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직접적인 지표로 읽힌다. 따라서 이름의 변화는 없더라도 시간과 공간을 바꾸기 함으로써 나타난 정체성의 변화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시공간이 바뀐 이후 서사 내부에서 인물이 그려진 양상을 살펴보면 ‘A: 바꾸기를 욕망하는 인물’보다 ‘B:바뀐 인물’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는 현재의 결핍 상태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사 초반 극적인 행동을 한다. 환생 전의 김대성이 스님에게 보시를 하는 행위가 그것이다. 자신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수단과 방법을 행하는 사건이 전면에서 부각된다. 반면 B는 바뀌기 이전의 인물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더디다. 삶과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경험을 통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고 점진적으로 각성해가는 것이다. 환생 후의 김대성이 꿈을 사냥한 뒤 꿈속에서 꿈과 조우하는 경험을 통해 ‘환생’과 ‘업보’ 등의 문제를 각성하고 불사를 진행하는 성장과정을 보이는 것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B는 서사에서 그 비중이 커져 삶의 구체성을 드러내고 각종 사건의 중심축에 서게 된다. 환생 전후의 두 인물이 성격적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바꾸기의 욕망’을 중심으로 욕망이 충족된 자가 이전의 욕망하는 인물보다 더 미숙하게 그려지는 것은 욕망이 충족된 자는 욕망하는 인물보다 세계와 타자에 대한 인식이 제한적이므로 의도적으로 바뀐 시공간 안에서 다시 ‘자라야만 하는 인물’<sup>10)</sup>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때 욕망이 충족된 인물은 시공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규정되면서 일시적으로는 욕망이 충족되는 것처럼 보

---

서 이해가 가능하다.

- 10) ‘자라야만 하는 인물’은 미완성 상태의 인간을 의미한다. 미숙한 자아가 외부의 자극과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처럼 이미 기본 욕망이 충족된 인물은 빠른 각성을 보이는 욕망하는 인물(욕망의 결핍 상태)에 비해서 타자와의 충돌, 극적 사건 등에 노출되었을 때 비소로 각성하고 성장할 수 있다.

이지만 나아가 이차적 욕망을 충족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이차적 욕망은 환생 전 ‘바꾸기 욕망’을 가졌던 인물이 시공간 바꾸기를 통해 획득한 바뀐 삶 안에서 참된 자아를 성취하는 것이다. 그것이 대성에게는 삶의 순환적 속성과 불법의 이치를 깨달아 종교적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욕망은 본질적으로는 바뀌기 이전의 세계에서 주인공이 욕망했던 대상을 바뀐 이후의 세계에서 확장시킨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차적 욕망은 서사의 주제를 암시하는 것이므로 윤회를 구조화한 작품마다 다양하게 추출해낼 수 있다.

## 2. 신격(神格)의 개입과 정체성 바꾸기

『삼국유사』에서 김유신은 욕망을 통한 시공간 바꾸기와 신적 존재의 개입으로 인한 정체성 바꾸기를 동시에 보여주는 인물이다. 삼국통일의 과업을 달성했던 김유신은 통일영웅으로서 『삼국유사』에서 가장 영웅적인 인물로 부각되어 있다. 그는 역사적 인물임에도 유사의 각편에 신이한 인물로 그려진다. 각편에 서술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김유신의 전생과 사후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양상1) 전생(33天의 한 아들) - 현생(김유신) - 내생(天神)

양상2) 전생(고구려 점쟁이 추남 or 七星) - 현생(김유신)

김유신의 윤회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양상1)은 「기이」편 ‘만과식적’에 전하는 내용으로 유추할 수 있다. 신문왕 때, 일관 김춘질은 동해안에 작은 산이 떠서 왕래하는 것을 보고 점을 쳐서 김유신이 33天<sup>11)</sup>의 한 아들로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대신이 되었다고 하였

11) 33천은 불교적 성격의 하늘로 제석천이 수미산의 정상에서 33천을 통괄한다. (김홍철 외, 『한국종교사상사』Ⅳ, 연세대출판부, 1998, 245면)

다.<sup>12)</sup> 『기이』편 ‘태종 무열왕’에도 당나라 고종이 태자로 있을 때, 하늘에서 “33천의 한 사람이 신라에 하강해 김유신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기록한 것을 등극한 후에 확인하였다고 한다.<sup>13)</sup>

양상1)에서 김유신의 윤회는 주체의 인간적 욕망이 시공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김유신은 천상의 신들 가운데 한 존재로 이때의 신격은 신화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역사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영웅의 근원을 천상에 둬으로써 김유신이라는 인물의 비범성과 영웅성을 더욱 부각시키고자 한 장치이다. 그럼에도 신이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인간의 모습으로 영웅적인 삶을 살아가는 선택은<sup>14)</sup> 단순히 신의 선택이라고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유신을 신격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 그것은 삼국통일의 감동에 젖은 타자들의 상상력이 벗어난 결과로 읽힌다. 삼국을 통일한 대업을 일개 인간이 해내기에는 온당치 않고 적어도 이전의 삶에서 신격을 획득했던 사람만이 해낼 수 있다는 인간의 열망이 만들어낸 바꾸기 장치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신격의 개입은 주체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이 들끓어서 만들어낸 가공의 존재를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양상2)에서도 다시금 확인이 된다.<sup>15)</sup> 고구려 점쟁이 추남 외에도 김유신의 전생에는 칠성이라는 신화

12) 日官金春質占之, 曰, 聖考今爲海龍, 鎮護三韓. 抑又金公庚信乃三十三天之一子, 今降爲大臣…(『萬波息笛』, 『紀異』卷二, 『三國遺事』.)

13) 故封爲太宗. 帝見表乃思儲貳時, 有天唱空云三十三天之一人, 降於新羅爲庚信, 紀在於書, 出檢視之, 驚懼不已…(『太宗春秋公』, 『紀異』卷二, 『三國遺事』.)

14) 김유신이 33천의 한 아들로 지상에 내려와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일반의 건국신화와는 차이점이 있다. 건국신화에서는 천제의 아들이 신격을 유지한 채 지상으로 내려와 왕이 되지만, 김유신은 보통의 인간으로 태어나 신하로서 위업을 달성한다. 박대복은 이를 인간세계의 지배구조가 초월세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 대응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논자는 이것이야말로 제3자에 해당하는 인간들이 그들의 욕망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이해한다. (박대복, 『<삼국유사> 소재 김유신설화의 巫 관념과 天 관념』, 『한국민속학』 44집, 한국민속학회, 2006, 185면)

적 요소가 나타난다. 일월과 오행의 정기를 타고 태어나 그의 등에는 칠성 무늬가 있고 그로인해 신기한 일이 많았다고 한다.<sup>16)</sup> 이 역시 김유신의 존재근원을 천상에 두고 있는 시각이며 김유신을 온전한 인간으로만 바라보기에 석연치 않았던 인간들의 믿음과 욕망이 만들어낸 바꾸기 설정이다.

33천의 한 아들이나 칠성은 그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인간계로 하강할 수 없다. 그는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존재이므로 절대성이나 유일성을 포괄하지 않고 있다. 다만 신성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범상치 않은 인간의 형상으로 태어나 탁월한 자질과 행보를 보인다. 이때 신적 존재를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공간은 바꾸기 전략을 취한다. 윤희는 단편적으로는 불교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실은 인류의 믿음을 총체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시공간 틀의 변형이다. 한 존재를 또 다른 존재로 바꾸어 그의 욕망, 혹은 타자의 욕망을 대리충족 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구조인 것이다. 김유신은 전생의 신격을 변화시켜 현생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다시 내생에서는 신격이 회복된다. 내생의 신격은 전생의 신격에 비하여 더욱 노골적으로 타자의 욕망을 투사한다. 내생에서는 호국룡이 된 문무왕과 함께 신라를 수호하는 호국신으로까지 추앙받는 것이다.<sup>17)</sup> 전생에 신의 아들이었기에 현생에서 영웅적인 위업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 그렇기에 죽어서 나라를 지키는 천신이 되었다는 믿음, 이것

15) 양상2)의 윤희에서 김유신이 고구려의 점술가 추남으로 등장하는 전생은 앞서 김대성의 윤희처럼 주체의 욕망에서 비롯된 시공간 바꾸기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장에서는 상제 분석을 생략한다. 추남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서 다시 대장으로 태어나 반드시 고구려를 멸망시키겠다고 공언하고, 고구려왕이 꿈에서 추남이 신라 서현공 부인의 품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서사를 통해서 원한에 대한 개인의 욕망을 확인할 수 있다. 복수의 욕망이 추남을 시공간 바꾸기를 통해 김유신이라는 정체성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라 이해 가능하다.

16) 稟精七曜，故背有七星文，又多神異。（『金庾信』，『紀異』卷二，『三國遺事』。）

17) 今王考爲海中大龍，庾信復爲天神，二聖同心，出此無價大寶，令我獻之。（『萬波息笛』，『紀異』卷二，『三國遺事』。）

은 모두가 당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욕망을 말해준다. 김유신이기에 가능한 믿음, 그 믿음은 시간과 공간의 지평을 확장시켜 바꾸기를 통해 김유신의 정체성까지 바꾸어 준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신적 존재들이 시공간을 바꾸지 않고도 새로운 정체성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관음보살이나 문수보살과 같은 불교의 보살들이 중생의 근기를 일깨워주기 위해 방편으로 활용하는 것이 인간의 형상인데, 이것은 윤회라는 틀을 제시하지 않고 현생 내에서 즉각적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효과적인 설정이다.

‘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怛怛朴朴’에서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에게 분별심에 대한 경계와 자비심을 일깨워 준 이는 관음보살이다. 관음보살은 불교의 신격을 지녔지만 이 작품에서는 젊은 여인으로 정체성을 바꾸어 나타나 두 사람의 근기를 시험한다. 신적 존재가 현생 안에서 즉각적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활용하는 이런 ‘정체성 바꾸기’는 시공간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양상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서사의 특징이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일순간에 깨달음을 얻는 계시적 속성이 강하므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정체성 바꾸기가 시도된다. 그러나 짧다고 해서 바뀐 인물이 묘사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다. 신적 인물이 바뀐 인간의 형상은 서사의 진행과정상 필수요소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더 극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다. 이 서사에서 관음보살은 하룻밤 동안만 정체성을 바꾸어 젊은 여성으로 등장한다. 짧은 시간 동안 그러지지만 젊은 여성에 대한 묘사는 상세하고 의미심장하기까지 하다.

(가) 날이 장차 저물어 나이는 스물쯤 되고 자태가 몹시 아름다운 한 남자가 난초와 사향 향대를 풍기면서 홀연히 북쪽 암자에 이르러 재워주기를 청하면서 시를 지었다.<sup>18)</sup>

18) 日將夕，有一娘子年幾二十，姿儀殊妙，氣襲蘭麝，俄然到北庵，請寄宿焉，因投詞

(나) “맑은 내 마음은 태허(太虛)와 같으니, 어찌 오가는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어진 선비의 뜻이 깊고 덕행이 높다는 말을 들었기에, 장차 도와 보리(菩提)를 이루어주려고 할 뿐입니다.” 그리고는 계(偈) 하나를 주었다.<sup>19)</sup>

(다) “내가 불행하게도 마침 해산 기미가 있으니, 스님께서 짚자리를 깔아 주십시오.” 부득이 불쌍하게 여겨 거절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촛불을 밝혀주었다. 남자가 이미 해산한 뒤에는 또 목욕하기를 청했다. 노닐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엇갈렸지만, 애처롭고 민망한 마음이 한층 더해질 뿐이었다. 곧 욕조를 마련해 남자를 그 가운데 앉히고 물을 데워 목욕시키자, 욕조 속의 물에서 향내가 풍기며 물이 금빛으로 변했다.<sup>20)</sup>

(가)에 묘사된 여인의 모습은 나이, 생김새, 향기까지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한 인물 설정이므로 비교적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인은 두 남성 수행자에게는 파계의 상징이므로 서술상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나)와 (다)는 여인이 부득이 방문한 이유를 암시적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나)에서 여인은 직설적으로 ‘보리를 이루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계를 읊어준다. 계에서 그녀는 ‘바라건대 내 청을 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인지는 묻지 마시오.’<sup>21)</sup>라고 말하며 자신의 존재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의미를 상징하고 있음을 넉넉히 전달하고 있다. 특히 (다)에서는 수행자에게 해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해산을 시중들어 마무리까지 시키는 고난도의 요구를 하고 있다. 이 요구는 일종의

曰(‘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恒恒朴朴’, 『塔像』, 『三國遺事』)

19) 湛然與太虛同體，何有往來，但聞賢士志願深重，德行高堅，將欲助成菩提。因投一偈曰。(각주 17과 동일)

20) 予不幸適有產憂，乞和尚排備苦草。夫得悲矜莫逆，燭火殷勤，娘既產，又請浴。弩盼慚懼交心，然哀憫之情有加無已，又備盆槽，坐娘於中，蕪湯以浴之。既而槽中之水春氣郁烈，變成金液。(각주 17과 동일)

21) 願惟從我請，且莫問何人。(각주 17과 동일)

시험이다. 부득이 그녀를 받아들이는 문제가 시험의 1차 관문이었다고 한다면 해산 과정을 수발하는 문제는 2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험을 통과한 부득의 눈앞에서 금빛으로 변한 물은 여인이 보여주는 말과 행위 가운데 가장 극적인 부분이다.

부득이 여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3단계를 거쳐 시험 받는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부득은 1단계에서 수행자와 여인의 분별심, 2단계에서 해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금기와 자비의 분별심을 극복한다. 3단계에서는 여인이 목욕한 물에 목욕을 함으로써 터부와 신성의 분별까지 극복하는 것으로 그의 근기를 시험 받았다. 여인으로 바뀐 관세음보살의 시험을 통해서야 비로소 부득이 깨달음을 얻어 미륵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박박 또한 뒤늦게나마 마음에 가린 것이 있어서 부처를 만나고도 모시지 못했음을 깨달았기에 무량수불이 될 수 있었다. 결국 이 서사에서 관세음보살의 인간으로의 정체성 바꾸기는 새로운 정체성 바꾸기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형상으로 그 존재를 바꿈으로써<sup>22)</sup> 결과적으로는 두 수행자의 정체성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 각각 미륵불과 무량수불이 된 것이 그것이다. 현재라는 제한된 시공간 안에서 신격의 정체성 바꾸기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서사의 지향점이 종교적 성취에 있기 때문에 주인공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이고도 극적인 경험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간과 공간을 바꾸지 않고도 주인공의 정체성 변화를 이끌어 내는 전략, 이것은 신격의 개입으로서만 해결할 수 있는 서사의 특수 장치에 해당한다.

김유신 서사와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서사는 신격이 개입되어 시공간 바꾸기와 정체성 바꾸기가 일어나는 작품들로 거론할 수 있는데 바꾸기

22) 관음보살은 원래 여러 시공간을 넘나들며 중생을 구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시공간이든 '존재하는 원래의 시공간'일 수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시공을 초월하여 정체성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본래 인간을 뛰어넘은 신격 존재만의 능력이기도 가능한 것이다. 어느 시공간이든 '원래의 시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사 내부에 존재하는 타자의 기대욕망이 반영되어 김유신이라는 인물이 시공간을 바꾸어 매번 다른 정체성으로 나타나는 점은 주체의 욕망뿐 아니라 타자의 욕망까지 서사 전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현재의 제한된 시공간 안에서 나타나는 신격의 정체성 바꾸기는 주인공의 정체성에 큰 성장점을 만들어주기도 하고,<sup>23)</sup> 나아가 주인공의 정체성 바꾸기까지 연속적으로 이끌어내기도 한다.

### Ⅲ. 영웅소설에 나타나는 정체성 바꾸기

#### 1. 금기의 욕망과 현생의 의미

대부분의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삶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김유신의 삶과 많은 면에서 일치한다. 천상의 존재가 인간이 되고, 다시 천상의 존재로 격상되는 윤희의 과정이 관습적으로 재생산되기 때문이다.<sup>24)</sup> 서사구조상 천상의 신격을 가진 인물이 인간이 되고, 인간의 삶을

23) 원효나 의상과 같은 고승들이 등장하는 서사에서는 관음보살이 인간의 형상으로 종종 나타나 그들을 시험하거나 깨달음을 주는 발언을 남긴다. 고승들은 그 깨달음을 통해 분별심을 버리거나 진신을 확인하고, 또 사찰을 짓는 등 다양한 변화 양상을 보인다. 이때 보살이 인간으로 ‘바꾸기’ 하여 등장하는 것은 주인공이 종교적 인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충격적 계기를 마련하는 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신격이 현생 내에서 인간으로 바꾸어 나타날 때 반드시 주인공의 정체성까지 바꾸는 것으로 확장되지는 않는다.

24) 고전소설의 ‘적강(謫降) 화소’를 분석한 연구가 많았지만, 논자는 윤희라는 시공간의 변화를 포착하는 것에 논의의 중심을 두기로 한다. 천상 인물의 인간으로의 환생을 ‘적강 서사’라는 사건 자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표현하면 윤희라는 순환적인 시간관 안에서 포착할 수 있는 서사의 주요 지점들을 놓칠 수 있다. 윤희구조는 천상계-인간계-(천상계)의 공간구조와 전생-현생-내생의 시간구조의 이중 구조로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심혜경, 『조선후기 소설의 윤희구조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11을 참조 바람.

살아가는 과정, 천상의 신격을 회복하는 결미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주체의 욕망, 신격 개입의 양상, 정체성 변화 등에서는 『삼국유사』와 다른 서사적 변화가 보인다.

이 장에서는 윤희의 과정을 거쳐 인간계의 삶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영웅소설을 분석할 것이다. 천상의 인물이 죄를 지어 인간으로 윤희하여 다시 태어난다는 설정은 많은 고전소설에 걸쳐 소략적으로라도 언급되는 부분이다.<sup>25)</sup> 인간계에 출생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비범하고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며 현생을 살아가는데 이때 시간과 공간의 바꾸기, 정체성 바꾸기를 통해 소설이 보여주고자 하는 궁극적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쌍선기』는 전생의 천상계 삶이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되어 있는 작품이다. 주인공인 태백은 상제의 심부름으로 청룡사의 삼불을 초청하러 가는 길에 시냇가에서 농옥을 만나 수작을 걸다가 시간을 지체하고 만다. 늦게서야 서둘러 삼불을 모시고 상제에게로 돌아가지만 잔치가 파한 후, 형구에 묶임을 당하여 애정행위에 대한 질책을 받는다. 이때 태백은 억울함을 하소연하다가 오히려 명부(冥府)에 보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게 하라는 엄벌을 받을 지경에 처한다. 그러나 태을(太乙)의 주청으로 간신히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서사의 내용을 보면 태백이 인간으로 윤희하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다. 정작 본인은 신적 위치에서 인간의 위치로 격하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인간의 정체성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그가 인간의 정체성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동인은 그의 욕망이다. 그가 농옥에게 느끼는 애정의 욕망은 천상계에서는 금기시하는 욕망이다. 고전소설에 나타

25) 논자가 수많은 고전소설의 내용을 섭렵하지는 못했으나 조희웅의 『고전소설줄거리집성1·2』(집문당, 2002)을 바탕으로 간략한 줄거리만을 살펴보았을 때, 윤희를 언급하고 있는 작품들은 최소 125편 정도였다. 실제로는 이 수치보다 더 많은 작품들이 윤희를 내용적·표면적으로 다루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는 천상계는 인간계를 관장하는 공간이므로 규율과 금기가 인간계보다 강화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일상적이라고 느낄만한 개인의 욕망조차 천상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혼란으로 흔히 규정된다.

(가) “낭자 실로 그러할진대 또한 청상 안면(靑上安面)이니 어찌 반갑지 아니하리오. 학생은 상제 명으로 운화산을 향하다가 우연히 낭자를 이곳에서 만나매, 예모가 혐의됨을 생각지 못하고 감히 거향(居鄕)을 물었사오니, 다만 후한 뜻이온데 이다지 매몰하시기는 생각지 못한 바라. 바라건대 낭자는 요지청조(瑤池靑鳥)의 신을 빌려 월로적승(月老赤繩)을 이어 좋은 인연을 허하소서”

선녀 태백의 호일(豪逸)한 기상과 쇠락(灑落)란 풍채를 보고 비로소 옥지(玉指)를 들어 운환을 정제하고 단순(丹脣)을 열어 다시 수어(數語)를 수작한 후, 이에 표연히 일어나 하직하고 연보(蓮步)를 움직여 동해로 향하거늘, 차시 태백이 선녀를 이별하고 사복(思服)하는 정회 더욱 간절하여 미미히 누흔(淚痕)을 머금고 암암히 비회를 띠었으니, 잊고자 하나 오히려 잊지 못하고, 생각지 말자 하나 스스로 생각나서 원원히 바라보고 촌장(寸腸)을 사르더니...<sup>26)</sup>

(나) 한 곳에 이르니 동학이 수려하고 간수 영회한 곳에 버들 속의 피꼬리는 쌍으로 노래하고, 꽃 사이에 나는 나비 대하여 춤춤을 보고 일념이 건양교에 미치매, 만사에 뜻이 없어 손들 들어 사면을 가리켜 왈, “저 같은 미물도 오히려 즐거움이 있거늘, 하물며 이런 청춘으로 어찌 무정한 세월을 보내는고.” 하고 인하여 송하석상(松下石上)에 나아가 수귀 시를 제한 후 가로되, “쌍쌍이 날고 쌍쌍이 깃들었으니 아름답다. 가지 위에 새로다. 알지 못게라, 천상의 즐거움이 인간의 괴로움과 어떠한고.”<sup>27)</sup>

26) 김기동 · 전규태 편, 『쌍선기』(동양문고본) 한국고전문학100선 18권, 서문당, 1984, 14면.

27) 동양문고본, 『쌍선기』, 앞의 책, 15면.

(다) 너 중시 지은 죄를 생각지 아니하고 공교한 말로써 도리어 위를 원망하니 이는 대죄를 지음이라,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건양교에서 선녀를 만나매 광쾌한 거동이 무상하다가 다만 선녀의 매물함으로 인하여 감히 꺾박지 못하고 선녀를 떠나매,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일념에 사모하여 공연히 탄식하기를 몇 번이나 하였으며, 운화산 동구에 이르러 마침내 잊지 못하고 송하석상에 나아가 여차여차한 글귀를 지어 필적을 머물었으니, 너 같은 박행누질(薄行陋質)은 결단코 옥경에 두지 못할 바이니, 마땅히 명부(冥府) 유사(有司)에 보내어 다시 인간에 나지 못하게 하리라.<sup>28)</sup>

(다)의 상제의 발언을 살펴보면 (가)와 (나)에 나타난 태백의 행동과 생각이 마치 실시간으로 감시되듯 상세하게 파악되고 있다. 철두철미하게 한 인물의 행위와 그 행위의 의도까지 낱낱이 추적되는 것이다. 태백의 애정적인 욕망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와 경미한 수준의 행위로밖에 나타나지 않음에도 죄로 정의된다. 천상계의 눈에 태백을 더 이상 천상의 존재로 인정할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사건이 확대된다. 본능적이고 소박한 욕망조차 신격의 인물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 그것이 천상계의 규율이다. 이러한 천상계의 규율은 사소한 실수에도 그 처리 과정이 매우 단호하고 동일하다.<sup>29)</sup> 한결같이 신격의 인물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때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은 역시 시공간의 변화이다. 신격의

28) 동양문고본, 『쌍선기』, 앞의 책, 16면.

29) 고전소설에서 주인공들이 천상에서 저지르는 실수는 대부분 형틀에 묶일 정도로 큰 죄목이 아니다. 인정에 끌려 몰래 술을 빼돌려 마시게 했다거나(『심청전』 한남본), 물건을 훔치고(『장자전』), 남녀가 눈이 맞아 애정행위를 하는(『삼생록』, 『구운몽』 등) 정도이다. 천상계의 득죄에 대해 김선아는 그 죄가 보편적인 의미의 악(惡)보다는 과실에 가까운 점, 공적인 과정을 통하여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육향상제 같은 절대자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규정되며, 죄를 지은 자 역시 죄의식이 없다는 점, 죄에 대한 징치도 사안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인데 하나같이 모두 인간계로 적강하는 동일한 벌을 내리는 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김선아, 『고소설에 나타난 죄와 지상의 의미』, 『청파문학』 vol.13, 숙명여대 국문과, 1980.)

인물이 인간으로 태어나 시련을 겪는 것은 전생으로 규정되는 천상계의 삶 이후 시공간이 바뀐 다음 펼쳐지는 서사이다. 신격의 인물은 주체적으로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바란 것은 아니지만, 그가 가진 욕망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간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신격의 인물이 자발적으로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인간의 형상으로 변모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고전소설의 서사에서 시공간 바꾸기를 통해 신격 인물이 인간으로 정체성을 바꾸는 것은 강제에 의한 것이다. 천상에서 그들의 행위는 ‘죄’로, 인간의 삶은 ‘형벌’로 정의된다. 천상에서 금기된 욕망과 실수, 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모조리 죄의 범위 안에 포괄된다. 천상계와 인간계는 엄연히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시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천상의 인물들을 새로운 시공간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죄’를 규정하는 특정 시각이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의 판결은 ‘형벌’의 시공간으로 현생이 마련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인간적인 욕망이 천상에서 ‘득죄’로 규정되고 ‘형벌’의 시공간으로 현생이 정의될 때, 현생의 구체적인 의미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인간으로 의 현생이 실제로 형벌인가 하는 물음을 일차적으로 던져보자. 형벌은 범 죄자에게 가해지는 일종의 제재를 말하는데 고전소설에서 가해지는 제재는 인간의 업보와 유한성을 전제로 한다. 천상계의 득죄와 인간계에서 속죄하는 과정을 궁극적으로 윤회의 틀 안에서 업보를 감내해야한다는 불교윤리로 설명해내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으므로 전생에서 닦은 업에 따라 그 과보를 받는다는 설정이다. 인간으로서의 삶은 철저하게 자신의 업에 따른 것이므로 논리적으로는 타당한 결과임을 천상계의 판결을 통해 문면에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이때 전제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인간이 절대적으로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이다. 삶은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유한성을 바탕으로 희로애락의 감정적 소비를 일삼아

인간을 한없이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 점이 천상의 신격을 가진 인물들에게는 가장 큰 형벌의 의미로 해석된다.<sup>30)</sup> 따라서 인간계에서 주인공들이 겪는 고난과 시련, 악인들에 의한 박해 등은 이들이 실제로 인간계에서 겪는 삶이 형벌에 해당하는 것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주인공들이 겪는 형벌은 부정적인 의미로만 해석되지 않는다. 그들이 인간으로서 겪는 어려움은 초반 이십 세 전후로 모두 극복이 가능하며 이후의 삶은 대부분 부귀영화, 입신양명과 같은 인간적 욕망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현생은 형벌의 공간으로 정의되는 동시에 일정 기간 죄과를 치루고 나면 무한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읽히기도 한다. 이 보상은 주인공들이 일종의 시험과도 같은 삶의 문제를 극복했을 때 주어지므로 단순 보상으로 해석할 수 없다. 보상에서 추론할 수 있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현생의 보상이 최대한으로 주어지는 것은 고전소설의 서사가 현생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 있다. 천상에서 금기된 욕망들이 인간계에서 모두 자연스럽게 충족되고, 더 큰 보상으로 확장되는 것은 고전소설의 형식화 된 전개과정이다. 이는 시공간 바꾸기를 통해 윤회가 이루어지는 동안 전생-현생-내생의 삶 가운데 현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시공간은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한시적이고 일회적이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자신의 욕망을 최대 충족하는 것이 본질적인 인간의 욕망이다. 전생의 신격, 혹은 내생의 신격을 전제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삶이 가지는 한계에 기초하여 효율적인 최대 욕망치를 현생의 공간에서 재현하고 있는 것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이것은 일반 대중들의 현실적 욕망과

30) 『쌍선기』에서 태백은 황건역사의 손에 끌려 인간계로 끌려가며 곧 겪을 인간계의 삶을 ‘삼재팔난의 중대한 厄境’이라 칭하면서 차라리 죽어서 후사를 모르는 것만 못하다고 하며 층암 아래의 못에 뛰어 들려고 한다. 『구운몽』의 성진 또한 풍도로 끌려가며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천상 인물들에게 인간의 삶이 재앙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다.

오락성을 함께 충족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는 소설에서 나타나는 시련의 극복과 보상이라는 패턴이 결국은 인생에 대한 철학적 깨달음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 욕망의 최대정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전소설의 결미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사의 허무함, 인생의 순환적 의미, 참된 삶의 가치 등을 말하고자 지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욕망의 최대치를 경험한 인간들은 어느 시점에 이르면 삶의 근본 의미를 찾지 못해 허탈감에 사로잡힌다. 자신들이 그토록 추구했던 인간의 욕망이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회의하는 것이다. 반문과 낙담을 거쳐 결국 이들은 인격을 벗어나 시공간을 다시 바꾸는 시점에서 인생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성찰할 수 있게 된다. 내생에서 신격을 회복하고서야 왜 인생을 경험해야 했는지, 인간의 욕망이란 무엇인지 해답을 찾게 되는 것이다. 인간성을 버림으로써 오히려 인간성을 깨닫게 되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시공간 바꾸기에서 목도할 수 있다.

‘죄’와 ‘형벌’의 이름으로 시행된 시공간 바꾸기는 다시 ‘보상’을 통한 욕망 충족을 통하여 인간에게 현재의 삶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결국 천상의 금기된 욕망은 시공간 바꾸기를 통해 인간의 충족되는 욕망으로 표현되고, 이 충족된 욕망은 현생의 가치와 의미를 생산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순환 원리, 욕망의 덧없음에 대한 깨달음까지 끌어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 신격의 개입과 성장점의 의미

죄-형벌이라는 철저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시공간을 바꾸는 서사 전개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천상 인물의 정체성 또한 바뀐다. 천상의 신격 인물일 때, 이들은 특정 면모 하나로 묘사되기 일쑤이다. 애정의 욕망에 대해 자유분방한 기질을 가진다거나 인정에 끌려 소소한 실수를 하는 등의

한 면만 강조되고 그것이 죄목으로 지정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유사한 형태로 그려진다. 그에 반해 정체성이 바뀌어 인간으로 주체를 드러내는 모습은 시련과 극복의 과정이 각 소설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적어도 천상계에 나타난 인물의 모습보다는 입체적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쌍선기』에서 태백은 봉린으로 태어나 험난한 인생을 살아간다. 출생하자마자 아버지로부터 칼에 맞아 죽을 위기를 두 번이나 겪고, 어머니와는 생이별을 하게 되며 계모에 의해 강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한다. 바뀐 시공간 안에서 그가 겪는 파란만장한 인생은 그 자신뿐 아니라 주변 인물과의 관계 또한 사실적이고 유기적으로 그려낸다.

고전소설 안에서 전생의 서사와 인물은 현생의 서사와 인물에 비해서 강력한 서사적 힘을 지니고 있지 않다. 전생이라는 시공간은 어디까지나 현생의 시공간을 보조하는 위치에 머물고 있다. 그것은 전생과 현생, 내생이라는 시공간 바꾸기를 통해 작품의 서사가 액자적 구성<sup>31)</sup>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액자구성을 취하고 있는 작품들이 외화(外話)보다는 내화(內話)에 이야기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처럼 전생의 시공간보다 현생의 시공간이 의미화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물 역시 전생의 인물보다 현생의 인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현생 인물의 성장 과정이 구체화되어 드러난다. 비록 죄를 지은 이는 천상의 인물이지만 ‘죄’라는 특수 상황보다 ‘형벌’을 치러야 하는 현생의 인물이 더욱 강조되어 문면에 그려진다.

이 인물 즉, 주인공의 성장 과정에는 또 다른 신격이 개입되어 나타난다. 앞서 『삼국유사』에서 살렸듯이, 보살들의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도처

31) 특히 조선 후기 소설의 액자 구조는 인간계와 천상계라는 시공간의 이중 구조를 취한다. 작품에 따라 내생의 삶이 묘사되지 않고, 전생-현생으로 서사가 종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는 액자의 틀에 전생만 배치될 수 있다. 이러한 액자구조는 열린 액자구조, 혹은 미완결 액자구조라 부를 수 있다. 열린 액자구조에 대해 김천혜, 『소설구조의 이론』, 한국학술정보, 2010, 237-238면 참조.

에서 주인공을 보조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이들은 때로는 승려의 모습으로, 혹은 점술가의 모습으로 선녀, 도사, 선인 등 다양한 캐릭터로 분한다.<sup>32)</sup> 이들이 가진 능력은 앞날을 내다보는 예지력, 삶의 기복을 관조하는 자세 등 평범한 인간과는 다른 일면들을 보여준다.

“빈도는 보화산 운수암에 있는 보살이요, 범명은 청정(淸淨)이니, 전일 노중에 권선을 올리매 정성이 지극하기로 돌아가 불전에 발원하고 장차 절을 중수하며 불상을 개비하려 하올 차에 거야에 관음께옵서 빈도더러 일러왈, ‘명일 모시에 소상 언덕에 불쌍한 사람이 있어 장차 이 절에 수년 인연이 있으니 빨리 가 구하라’ 하시기로 왔사오니 어찌 우연타 하리오.”<sup>33)</sup>

『쌍선기』에서 주인공 봉린의 어머니인 이씨가 집안에서 내쳐져 갈 곳이 없을 때 그녀를 도와주는 이는 노승이다. 그는 관음보살의 계시로 이씨를 구하여 이씨가 남편인 한씨와 결합하고, 아들 봉린과 만나기 전까지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물이다. 그가 이씨를 구하게 되는 이유는 관음보살의 직접적인 계시이며 무엇보다 윤희설과 인연설까지 두루 이해하고 있는 까닭이다. 봉린 역시 득심이라는 충직한 하인에 의해서 목숨을 구하게 되는데, 득심이 봉린과 이씨를 위해 충심을 다하는 이유에는 인물 본연의 충직함도 자리하고 있지만 또 다른 신적 인물의 계시도 작용을 하고 있다. 죽은 이씨의 아버지가 득심의 꿈에 나타나 ‘세상만사 다 때가 있나니 일시 지원함이 있으면 일명을 구하기 어려우리니 바빠 남으로 향하면 자연 만날 날이 있으리라.’<sup>34)</sup> 하며 즉각적인 계시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인공이 생사여부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등장하는

32) 관련하여 초월적 조력자에 대한 연구는 윤보윤, 『재생서사에 나타나는 초월적 조력자의 비교연구-불교서사와 고전소설을 중심으로』, 충남대 석사논문, 2007 참조.

33) 『쌍선기』, 앞의 책, 118면.

34) 『쌍선기』, 앞의 책, 102-103면.

인물들은 신격의 인물이거나 그들에게 계시를 받은 인물이다. 그들은 어떻게든 주인공의 생명을 지연시키고자 하며, 절망과 고난의 정점에서 인생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주인공들에게 넓은 안목으로 삶을 바라볼 것을 권유한다.

『백학선전』에서 여주인공 조은하는 남주인공인 유백로와 첫 만남 이후로 서로를 찾아 헤매는 시련을 겪는다. 늑혼을 피해 도망다니던 그녀는 천정인연인 유백로를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부채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다. 세월은 흐르는데 옥살이는 기약이 없고, 연약한 기질로 심신이 피폐해져 마지막 의욕마저 사라진 순간 결국 조은하는 삶을 포기하는 상황에게까지 이른다. 이때 그녀의 꿈에 아황과 여영이 나타나 선계의 여인들과 함께 그녀의 청덕(淸德)과 열절(烈節)을 칭송해주고 오래지 않아 유백로를 만나 해로할 것이라 위로한다. 또한 조은하에게 용력을 접지하여 어려운 때에 부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귀뜸해 준다. 선계 여인들에게 자신의 정당한 평가와 인정을 받은 조은하는 비소로 다시 삶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된다. 훗날 유백로가 전장에서 위협에 처했을 때는 한 노인이 나타나서 조은하에게 환약을 주어 신이한 능력을 부여한다. 그 능력은 ‘배우지 않은 병법과 익히지 않은 검술을 자연 알게 되고, 용력이 배로 늘어나는’ 능력이다. 이로 인해 조은하는 유백로의 목숨을 구하게 되고 여성영웅으로서의 자신의 입지도 갖추게 된다. 신격 인물이 꿈속에서 앞날을 예지하거나 실제로 보검, 환약 등을 주인공에게 건네어 주인공이 출장입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이다. 이런 신격 보조자의 도움이 없이 주인공의 힘만으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제보살들이 수행자의 근기를 깨우치고 그들에게 즉각적인 깨달음을 유도하기 위해 인간의 형상으로 바꾸어 등장했다고 한다면, 영웅소설에 등장하는 조력자들은 신격을 유지한 채 등장하기도 하고, 인간의 형상이지만 신적 능력을 소유한 인물로 나타난다. 『백학

선전』에 등장하는 아황과 여영은 천상계의 인물로 소개되며 그 신적 능력으로 주인공에게 앞날을 예지해 준다. 『쌍선기』의 관음보살은 노승에게 꿈속에서 계시를 내린다. 조은하는 신비로운 노인에게서 환약을 받는다. 조력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사실상 주인공들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고전소설의 서사가 대부분 인간의 성장담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매번 주인공이 인생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순간에 등장한다. 죽음에서 삶으로 회귀하는 순간,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시기, 천정가연을 만나 인연을 맺는 시점 등 서사의 주제 구현 방향에 따라서 다양한 시기에 등장한다. 이 시기는 주인공이 새로운 세계와 조우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때이기도 하다. 인간은 정확히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야 성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성장의 과정 중에서도 급성장을 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때는 그간의 삶과는 다른 계기가 조성된다. 충격적 경험, 새로운 가치관 등에 부딪혀 혼란과 회의의 과정을 거치고 그 안에서 내적인 자기성숙을 도모하게 되는데 그 시기를 성장점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sup>35)</sup> 이 성장점은 인간이 내부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외부의 물리적 해결책을 통해 답을 찾는 것이 일상적이다. 선구자의 지식이나 올바른 인도, 타자와의 교우, 조언 등을 통해서 일차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내면의 자아와의 해결을 통해 이차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전소설의 서사에서 신격의 개입으로 해석되는 이런 조력자들의 등장 시기는 주인공이 현생 안에서 일차적으로 성장하고, 내면의 자아 발견을 통해 이차적 성장을 하는 성장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서사의 결미에 주인공들이 다시 시공간을 바꾸어 천상인물로 회

35) 현실의 모순을 문제 삼고 이를 회의하는 과정, 사회 정체성을 확보하는 여정, 세계 인식 방법을 알아가는 방법 등은 모두 성장의 문제를 의미한다. (최기숙, 『성장소설로 본 <금방울전>, <김원전>』, 『연민학지』 vol7, 연민학회, 1999.)

복되는 작품들의 경우, 성장점의 진면목이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주인공들이 인간에서 신경인물로 정체성이 바뀌었을 때, 천상의 주관자는 그들에게 “그동안 인간의 재미가 어떠하였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거나(『쌍선기』, 『구운몽』) 혹은 그간의 노고 및 공덕을 치하한다.(『삼생록』) 이러한 물음과 표현은 인간의 삶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기도 하다. 재미는 유희적인 속성에서 비롯되는 감정의 상태를 의미한다. 인생의 재미라는 표현은 사실상 인생이 완전하게 재미있지만은 않다는 의미를 전제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재미가 어떠하냐’는 질문은 ‘재미있느냐’, ‘재미없느냐’라는 개별적인 물음이기도 하고, 둘을 포함한 이중적인 물음이기도 하다. 이러한 언어의 유희는 사고의 유희를 촉발하며 삶에 대한 관조적 웃음과 함께 진지한 성찰을 동시에 끌어낸다.<sup>36)</sup> 또한 인생에 대한 노고와 공덕이라는 표현은 종교적 의미로만 해석할 필요가 없다. 누구나 자신의 삶과 자신을 일체화하기 때문에 삶 또한 하나의 작품으로 평가받고 평가하고 싶어 한다. 곧잘 타인의 삶에 ‘의미있는’, ‘쓸모없는’ 등의 수식어를 갖다 붙이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 것처럼 삶의 평가를 받고 싶은 내밀한 인간의 욕구를 건드리고 있는 ‘노고의 치하’는 결국 삶의 갈무리이기도 하다.

영웅소설에서 신경의 인물이 서사 내부에서 유도하는 것은 현생 내에서 주인공의 정체성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전생의 인물에 비해 강조된 현생의 인물들은 갖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 시대의 영웅으로, 또는 인간 최고의 부귀를 누리는 인물로 부상한다. 이들이 그러한 위치에 도달할 수

36) 원래 언어유희는 환자의 자회에서부터 문맥 차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언어 요소를 대상으로 기존의 독법에 변형을 가함으로써 익살이나 풍자의 효과를 노리는 말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전병용, 『조선시대 언어유희와 통신언어 언어유희의 비교 분석』, 『동양고전연구』 vol24, 2006, 188면) 이승훈은 언어유희의 유형으로 8가지를 제시하였는데 논자는 ‘한 낱말이 두 가지 뜻을 지니는 애매한 말의 기법’에 이와 같은 질문이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승훈, 『시작법』, 문학과 비평사, 1988, 228면 참조)

있도록 도와주는 신격의 개입은 주인공의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또한 주인공뿐만 아니라 독자에게도 시공간 바꾸기를 통한 정체성 바꾸기는 다양한 시각적 전환을 유도하여 현재의 삶을 성찰하는 눈을 갖게 하는 이중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 IV. 나가며

정체되어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 싶거나 특정 변화를 요구할 때 인간은 일상에서 소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바꾸기’를 시도한다. 현실에서 ‘바꾸기’는 변화를 끌어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자체가 상당부분 어려운 과제에 해당한다. ‘바꾸기’를 통해 정체성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인간은 상상력을 활용한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시간, 공간을 상상력의 지평을 통해 확장시키고 ‘바꾸기’를 통해 인간이 욕망하는 것을 충족시켜 인생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가설 하에 이 논문은 『삼국유사』와 영웅소설에 나타난 시공간을 ‘바꾸기’의 관점으로 파악하고 정체성 변화에 주목하였다. 시간과 공간은 인간이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할 뿐, 자유의지로 점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야기 속에서 시공간을 자유자재로 이동시키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흥미롭다.

『삼국유사』에서 시공간은 불교의 윤회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바뀐다. 전생-현생-내생이라는 시공간의 카테고리 안에 인간의 욕망을 투사하여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물을 배치시킨다. ‘윤회’는 주체인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나’는 욕망한다. 또 ‘우리가 욕망하는 인물’을 저 높은 하늘의 존재로 설정할 수 있다. 그렇기에 ‘영웅’이 만들어진다. 바꾸기를 통해 인간이 욕망하고 욕망하는 삶을 사는 것은 결국은 인생에

대한 해답 찾기의 한 방안이다.

고전소설 또한 인간과 삶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는 장르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삼국유사』 설화에서 나타난 시공간 바꾸기의 전략은 고전소설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소설 속 더욱 현실적인 현재의 욕망은 천상계라는 제약으로 현실과 윤리의 갈등 속에서 금기된 욕망으로 치부되고, 금기의 상황에서 인간은 더욱더 치열하게 욕망한다. 천상계의 금기 속에서 인간이 꿈꾸는 모든 욕망은 시공간의 바꾸기, 정체성 바꾸기를 통해 인간계에서 더할 나위 없이 충족된다. 천정인연, 부귀영화, 출장입상과 같은 중세의 욕망들은 고난과 시련을 극복한 영웅의 삶에서 충분히 보상받게 되는 것이다. 영웅소설 속 현생에서 주인공들이 누리는 충족감은 최고의 지점에 도달해 있다. 그러므로 완벽한 욕망의 충족 위에서 인간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충족된 삶에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깨달음, 삶의 의미는 무엇이나고 반문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다.

시공간을 바꾸는 전략은 현재의 서사작법에서도 여전히 흥미로운 대상이다. 시공간을 바꾸고 정체성을 바꾸어 우리가 진정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인간, 타자와의 관계이다. ‘바꾸기’는 대상에 매이지 않고 제3의 관점으로 시각의 전환을 유도한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각을 통해 지향하는 것은 결국은 타자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노선이다. 『삼국유사』 설화와 영웅소설에 나타나는 시공간 바꾸기의 전략과 정체성 바꾸기가 서사작법에 대한 고찰로 작은 임무를 다해주길 바란다.

## Abstract

## The Meaning for Changing the Identity in Wheel of Life Centrally *Samgukyusa*(三國遺事) and Fiction for Hero

Shim, Hye Kyung

This paper was to explore the placement of the time and space in *Samgukyusa*(三國遺事) and classical novels. ‘Wheel of birth’ that appeared frequently in *Samgukyusa*(三國遺事) and classical novels showed the process reorganized through setting previous life–present life–next life. It was the strategy to achieve the purposes such as protagonists’ character change, smooth progress of the story, emphasis of the theme, etc by changing the time and space in the narration intentionally.

The time and space in *Samgukyusa*(三國遺事) were changed strategically from the perspective of Buddhism’s reincarnation. New life and figures were placed in the category of the time and space called the previous life–present life–next life by projecting human desires. ‘Wheel of birth’ made the subject, ‘me’ be born. So ‘I’ desired and ‘the figures that we desire’ could be set as the figures in heaven. Thus ‘the hero’ was created. It was a way to find the answer to life that human beings desire and live the life desired through changing.

It could not be denied that the classical novel also was the genre with fundamental questions on human life. The strategy for changing the time and space on *Samgukyusa*(三國遺事) was still valid in the classical novel. The more actual desires in the present time was regarded as forbidden desires in the conflict of the reality and the ethics, people desired in the illicit situation more and more. In the celestial world’s taboo, the desires that people wanted satisfied the human world through changing the time and space. The human desires such as the ties heaven decided, wealth and honor, entering all kinds of the government service were sufficiently rewarded in the hero’s life to overcome the trials and tribulations. This fulfillment enjoying in the present life in the classical novel was already enough and perfect. Therefore, human beings could ask question in the perfect fulfillment of the desires. It could be asked that the realization people could get in the fulfilled life, what the meaning of life was.

The strategy for changing the time and space is still an interesting subject in the current narrative manner. It's human life and people, other people what we want to ask by changing the time and space and the identity. 'Changing' isn't tied to the target and induces the transition of the time into the perspective of the third.

Keywords :

*Samgukyusa*(三國遺事), Wheel of birth, previous life, next life, changing the time and space, classical novels, taboo

## 참고문헌

### □ 기본자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백학선전』.

김기동·전규태 편, 『쌍선기』 한국고전문학100선 18권, 서문당, 1984.

일연, 『삼국유사』.

조희웅, 『고전소설줄거리집성』1·2, 집문당, 2002.

### □ 단행본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사, 1983, 1-904면.

김천혜, 『소설구조의 이론』, 한국학술정보(주), 2010, 1-433면.

김홍철 외, 『한국종교사상사』IV, 연세대출판부, 1998, 1-333면.

오형근, 『불교의 영혼과 윤회관』, 도서출판 대승, 2005, 1-507면.

이승훈, 『시작법』, 문학과 비평사, 1988, 1-382면.

조재현, 『고전소설의 환상세계』, 도서출판 월인, 2009, 1-379면.

조현설 외, 『한국 서사문학과 불교적 시각』, 역락, 2005, 1-361면.

한국고전문학회 편, 『국문학과 도교』, 태학사, 1998, 1-412면.

### □ 논문

강동수·김재철, 「초기 르네상스 철학의 상상력 이론」, 『철학연구』 87집, 대한철학회, 2003, 1-28면.

강재철, 「고소설의 정악양상과 의의」, 『동양학』 33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3, 49-61면.

경일남, 「<삼국유사>의 신이출생고」, 『어문연구』 vol.15, 어문연구학회, 1986, 115-130면.

구미래, 「일생에 대한 불교적 관점과 불교 일생의례의 특성」, 『비교민속학』 39집,

- 2009, 225-257면.
- 권현익, 「전생에 맺은 사회관계-신화분석과 비교문화」, 『한국문화인류학』 32-1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99, 149-209면.
- 김선아, 「고소설에 나타난 죄와 지상의 의미」, 『청파문학』 vol.13, 숙명여대 국문과, 1980, 115-129면.
- 박대복, 「〈삼국유사〉 소개 김유신설화의 巫 관념과 天 관념」, 『한국민속학』 44집, 한국민속학회, 2006, 169-203면.
- 신태수, 「적장소설에 나타나는 자의식과 운명의 관계」, 『한민족어문학』 vol.43, 2003, 267-295면.
- 심혜경, 「조선 후기 소설의 윤회구조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11, 1-165면.
- 오현숙, 「들뢰즈와 불교의 시간론」, 『동서비교문학저널』 16호, 2007 봄·여름, 111-134면.
- 윤보윤, 「재생서사에 나타나는 초월적 조력자의 비교연구-불교서사와 고전소설을 중심으로」, 충남대 석사논문, 2007, 1-97면.
- 전병용, 「조선시대 언어유희와 통신언어 언어유희의 비교 분석」, 『동양고전연구』 vol.24, 2006, 185-221면.
- 최기숙, 「성장소설로 본 <금방울전>, <김원전>」, 『연민학지』 vol.7, 연민학회, 1999, 153-188면.

접수일(2012. 11. 30), 심사일(2013. 1. 11), 게재확정일(2013. 2. 1)